

# 양건식(梁建植) 사상과 문학의 총체성①\*

- 인물에 비춰 본 양건식 사상궤적의 윤곽 -

유봉희\*\*

## 〈차 례〉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불교철학으로 서구근대사상 되감기
  - 1) 사회진화론, 양건식과 키요자와 만시
  - 2) 양건식과 오스키 사카에, 그리고 베르그손
  - 3) 양건식과 염상섭, 사회주의에 대한 또 다른 시선
4.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백화(白華) 양건식(梁建植, 1889~1944)은 한국근대문학의 이면사(裏面史)였다. 양건식이 아직까지 한국 근대문학사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그가 1910년대 주목할 만한 단편소설을 발표했던 작가였음에도 번역을 제외하고는 장편소설이 없다는 것과, 1910년대부터 본격 작품을 쓰는 작가가 아닌 ‘중국문학 번역가’ 정도로 인식되어 온 고정관념이 지금도 엄존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들 수가 있다. 더 큰 이유로 필자는 서구가 던져준 ‘폭력적 근대’에 대항하려 했던 ‘방법론적 가치’로서의 양건식 사상에 주목하지 못한 결과를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이 연구는 양건식 사상과 문학의 총체성을 복원한다는 목적 아래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다. ① 양건식의 사상적 궤적을 통해 그의 사상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② 1910년대 양건식 문학의 재발견, 두 개의 진행항목으로 나누어 추진할 생각이다. 그의 문필활동이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으나 그의 사상편력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어 왔다. 1910~1930년대 근대담론을 분석한 연구에서 양건식을 거론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1035071).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인문사회학술교수

반증하고 있다. 그는 당대 누구보다도 동아시아 근대담론의 형성과 지식장(知識場)의 전환에 매우 민감했던 인물이다. 그의 글 전체를 독파하다 보면 시대 시대마다 국면 국면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히 밝혀왔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논문은 연구방향의 첫 번째 시도로 양건식 사상의 궤적을 통해 그의 사상적 가치를 재평가, 우리의 근대문학사에서 양건식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건식이 한국근대문학의 이면사(裏面史)였던 관계로 양건식 시대 한·중·일 주요 인물을 통해 그의 사상적 궤적을 탐색하는 방법론을 택하기로 했다.

[주제어] 양건식·염상섭·오스기 사카에·양리 베르그손·크로포트킨·키요자와 만시·이노우에 엔로·진화론·생명주의·아나키즘·사회주의·근대불교

## 1. 서론

백화(白華) 양건식(梁建植, 1889~1944)은 한국근대문학의 이면사(裏面史)였다. 다가가면 흐릿해지는 듯하고 외면하기에는 반짝이는 그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그림자 같은 존재로 기억되어 왔다. 지금도 양건식 문학은 깨진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 양건식의 존재확인 은 1960년대 북한문학사에서 먼저 시작했다.<sup>1)</sup> 북한문학사에서 「슬픈 모순」(1918)을 1910년대 사회주의문학의 기본 특징을 구현한 작품<sup>2)</sup>으로 주목했던 것이다. 양건식은 이렇게 「슬픈 모순」으로 우리 근대문학사에 등장했지만 그는 그 이전 「釋師子像」(1915)·「迷의 夢」(1915)·「歸去來」(1915) 등 빼어난 단편을 발표한 작가였고, 스물 중반을 갓 넘긴 나이에 ‘조선불교진흥회’에서 한국학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이능화(李能和, 1869~1943)와 함께 활약한 거사불교운동(居士佛敎運動)의 중추였다. 1920년대 초에는 『開闢』에 중국의 문학혁명운동과 현대소설을 번역, 소개하면서 “朝鮮 唯一의 中華劇 研究者요 翻譯家”<sup>3)</sup>란 찬사를 이광수로부터 듣기도 했던 인물이다. 특히 『朝鮮文壇』에서 시도한 합평회에서 『開闢』의 박영희와 이익상의 작품을 신랄하게 공격, 이른바 민족주의문학과 신경향

1) 김영금, 『백화 양건식 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15쪽.

2) 박종원·최탁호·류만, 『조선문학사』, 열사람, 1988, 121쪽; 박충록, 『한국민중문학사』, 열사람, 1988, 210쪽.

3) 長白山人, 「梁建植君」, 『開闢』 제44호, 1924. 2.

과문학의 대립을 가져오는 동기를 제공했던 평론가이기도 했다.<sup>4)</sup> 1930년대 들어 그의 문필활동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단하지는 않았다.<sup>5)</sup> 본격적으로 양건식 연구의 물꼬를 튼 고재석은 “그는 남북한 문학사를 통해 양쪽에서 거론된 몇 안 되는 드문 인물이면서도 그 어느 쪽에서도 총체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채 풍문처럼 떠돌고 있는 불운한 존재”<sup>6)</sup>라 했다. 남한문학사에서 1980년대 후반에서야 그의 풍문을 듣기 시작했다.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는 한국근대문학사에 어떠한 위치로 존재하고 있는가, 1910년대 달랑 눈에 띄는 몇 편의 단편 정도를 발표하다 사라져간 우리 근대문학의 미숙아였던가?<sup>7)</sup>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출발했다.

양건식은 아직까지도 한국근대문학사에 제대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그가 1910년대 주목할 만한 단편소설을 발표했던 작가였음에도 번역을 제외하고는 창작 장편소설이 없다는 것과, 1910년대부터 본격 작품을 쓰는 작가가 아닌 ‘중국문학 번역가’ 정도로 인식되어 온 고정관념이 지금도 엄존해 있다는 사실 등에서 그 원인을 먼저 찾을 수가 있을 터다. 더 큰 이유로 필자는 서구가 던져준 ‘폭력적 근대’에 대항하려 했던 ‘방법론적 가치’로서의 양건식 사상과 문학에 주목하지 못한 결과를 지적하고 싶다. 양건식의 사상적 궤적에 대해서는 불교철학과 사회진화론을 일부 거론한 소수의 연구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양건식 사상과

4) 고재석, 『백화 양건식 문학연구1-3·1운동 이전까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12집,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1989, 3~4쪽.

5) 『佛敎振興會月報』 등 불교 관련 잡지와 『靑春』·『開闢』·『朝鮮文壇』·『東亞日報』 등 주요 매체에 시대를 달리하면서 소설창작과 중국문학 번역·연구를 비롯해 불교철학논문·시론 등을 꾸준히 발표한 양건식은 1920~30년대 지식사회에서 결코 낮은 인물이 아니었다.

6) 고재석, 위의 논문, 3쪽.

7) 사실 1910년대 이광수의 『무정』이 보여준 방대한 계몽적 인식과 서사 앞에서 달랑 작품으로 단편 몇 편 들고 있던 양건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 터다. 양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가 보여준 작품의 내용을 들여다볼라치면 리얼리즘이 지닌 사상적 품격과 양식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것은 1910년대 한국문학이 거둔 성취였음을 거듭 확인시키고 있다. 1910년대 문단이 이광수와 최남선 ‘2인 시대’라 하지만 그들의 ‘빛’에 가린 소중한 ‘보물’들은 존재했던 것이다. 양건식을 통한 1910년대 문학의 ‘가치의 재발견’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1910년대로 양건식의 문학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서구사상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을 외면하던 시기에 양건식은 1920년대 본격적으로 중국문학 번역가의 길로 들어섰다. 지식인 사회 대부분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을 때 루쉰·후스 등 중국의 신문화운동과 5·4운동의 주역들의 작품과 논문 등을 국내에 적극 소개했던 인물이 그였다.

문학의 총체성 복원의 단초를 연다는 목적 아래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진행했고, 할 계획이다. ① 양건식의 사상적 궤적을 통해 그의 사상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② 구체적 문학 텍스트를 통해 작가와 평론가로서 양건식의 문학사적 의의(특히 1910년대)를 복원하는 것, 두 개의 진행항목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그 연구의 첫 시도로 그의 사상의 궤적을 통해 근대에 대항하려 했던 ‘가치로서의 양건식’을 재발견 하고자 한다. 그의 문필활동이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으나 학계에서는 그의 사상편력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어 왔다. 1910~1930년대 문학담론을 분석한 연구에서 양건식을 거론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는 당대 누구보다도 동아시아 근대담론의 형성과 지식장(知識場)의 전환에 민감했던 인물이다. 그의 글 전체를 독파하다 보면 시대 시대마다 국면 국면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히 밝혀왔음을 알 수가 있다. 아쉽게도 양건식의 인적 교류 등 그의 사상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논문은 우회경로를 택하기로 했다. 양건식 시대 한·중·일 주요 인물들 통해 그의 사상궤적을 비춰보기로 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안고 출발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가 양건식 사상의 전체상을 그리는 단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양건식 사상분석의 서설(序說) 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1988년 북한문학에 대한 해금조치가 단행된 후 남한문학계에서도 양건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1988년과 1995년에 지양사와 강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각각 『양백화 문집』을 발간, 작가연구에 대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책이 양건식 연구에 문헌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양건식

의 일부 작품과 논문·시론·평론 등이 빠져 있는가 하면 일부 오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작업은 시급한 실정이다. 양건식이 칸트의 철학사상을 번역·소개한 『西哲康德格致學說』(1915, 『佛敎振興會月報』 제1호-7호 연재)을 누락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문학계에서 양건식 연구는 사실 1970년대 후반 중국연구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중국문학의 전신자’로서 양건식을 발견한 것이다. 간략히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1980년대 말 고재석이 그 물꼬를 트면서 양건식 연구는 1990년대 들어 자못 열기를 뿜는 듯했다. 고재석은 1910년대 단편소설 작가로 양건식을 최고로 평가했다. 그는 양건식의 문학관으로부터 번역활동에 이르는 전반적인 작품세계를 살펴, 작가의식과 사회의식 등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었는지를 집중 분석, 양건식의 가치를 재발견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불교와 한국근대소설의 영향관계에 주목한 것은 고투의 산물로 평가할 만하다.<sup>8)</sup>

이후 주목할 연구로는 양문규·김복순<sup>9)</sup> 등의 논문이 있다. 이들은 양건식의 작품을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로 평가하면서 적극적 의미를 던졌고,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1920년대와의 상관성을 도출하려 했다. 이념적 연속성을 강조한 것이다. 양건식을 1920년대 리얼리즘 문학 전개의 전사로서만 한정, 1910년대 양건식의 문학사적 의의를 오히려 축소한 측면은 지적할 수가 있다. 한점돌의 연구<sup>10)</sup>는 양건식의 소설을 ‘모순의 미학’으로 파악한 가운데, ‘비극소설’이란 개념으로 그의 문학을 규정했다. 모순의 실체를 불교철학과 사회진화론 사상의 대립과 갈등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1910년대 양건식 문학의 의의의 정곡을 얻지는 못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양건식의 중국문학 번역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아쉬운 것은 희곡, 소설 등

8) 고재석, 『1910년대의 불교근대화운동과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제1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7; 『백화 양건식 문학연구』, 『한국문학연구』 제1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889 등이 대표적이다.

9) 양문규, 『슬픈 모순과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문제』, 『창작과비평』 제67호, 1990년 봄; 『1910년대 한국소설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91;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91.

10) 한점돌, 『양백화 소설의 모순의 미학』, 『인문논총』 제9집, 1990; 『1910년대 한국소설의 정신사적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2.

연구자들이 전공의 시선에서만 포착할 뿐, 서로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중국문학 번역과 관련해 중국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자들 사이에 뚜렷한 대치선을 형성하고 있는 점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중국문학 연구자들은 양건식 중국 고전번역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대체로 그의 번역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한국문학 연구자(특히 현대문학)들은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sup>11)</sup> 점차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2)</sup>

이상을 종합해 양건식 주요 연구의 현황을 보면<sup>13)</sup> 양건식 연구의 총체적 접근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가 있다.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특정 장르나 소수의 작품 등 부분적 탐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양건식의 사상의 궤적에 대해서는 불교철학과 사회진화론을 일부 거론한 소수의 연구만 있을

- 
- 11) 이시환, 「일제강점기 한국 작가들의 중국현대문학 바라보기와 수용양상-양건식·이동규·양명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33집, 대한중국학회, 2009; 박진영, 「중국문학 번역의 분기와 이원화」, 『동방학지』 제166집,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14. 이들은 양건식의 중국문학 관련 번역들은 일본어 판본을 주요 텍스트로 하여 번역했다는 협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터라 보고 있다. 본 연구 또한 이에 대해 일부 긍정하지만 그 가치는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둘 모두 한국 중국문학 최초·최대 번역자이자 전파자로 양건식을 꼽고 있어 양비론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양건식 번역의 가치일 터인데, 특히 이시환은 박진영에 비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12) 「일반적 한국에서 최초로 중국 현대문학을 수용한 사람으로 양건식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그의 대부분의 중국관계의 글과 번역들은 일본으로부터 발신된 것으로, 일본어를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한 실정에 불과할 뿐이다.(…)따라서 그가 중국문학 소개와 번역을 통해 무엇을 지향했는지의 근대적인 목표가 불명확하다. 다시 말해 그의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철저히 극복하려는 대항과 비판의 논리와 개성과 자유의 발견이라는 근대 기획을 향한 새로운 움직임조차 발견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시환, 위의 논문, 35쪽.
- 13) 이석호, 「중국문학 轉信者로서의 양백화-특히 중국희곡과 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논총』 제13집, 1976; 고재석, 「1910년대의 불교근대화 운동과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10집, 1987; 박재연, 「양백화의 중국문학 번역 작품에 대한 재평가-현대희곡과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4집, 1988; 객근, 「白華 梁建植 소설연구」, 『경주대학논문집』 8집 3호, 1989; 고재석, 「白華 梁建植 문학 연구-3.1 운동 이전까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12집, 1989; 고재석, 「한국 근대문학의 불교지성적 배경연구-한용운과 양건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박사논문, 1990; 양문규, 「슬픈 모순과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문제」, 『창작과비평』 67호, 1990; 박용식·고재석, 「양건식 문학연구」, 『민족문화연구』 24권, 1991; 최용철, 「양건식의 『紅樓夢』 평론과 번역문 분석」, 『중국어문논총』 제6권, 1994; 최용철, 「백화 양건식의 중국문학의 연구와 번역에 대하여」, 『중국어문학』 제28집, 1996; 고재석, 「한국현대문학사와 불교소설-『석사자상』에서『만다라』까지」, 『한국문학연구』 19집, 1997; 김복순, 「양건식의 초기 단편소설 연구」, 『동방학지』 69호, 2008 등이 있다.

뿐만,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문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편 소설, 특히 「슬픈 矛盾」·「釋師子像」 등에 식민지 현실비판이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양건식이 추구한 근대 그 자체를 깊이 회의했던 ‘근대극복 의지’란 중요한 지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 3. 불교철학으로 서구근대사상 되감기

양건식의 사상과 문학의 출발점은 불교였다. 양건식이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린 것은 1912년 12월 26일 경성 박동(薄洞, 지금의 종로구 수송동)에 있던 각황사(覺皇寺) 포교당에서 거행된 석가세존성도 기념식에서 이능화와 함께 찬연(讚演)하면서 부터다. 그는 이능화와 이러한 인연 속에서 1910년대 『佛敎振興會月報』·『朝鮮佛敎界』·『朝鮮佛敎叢報』 등의 불교잡지 기자로 활동 하면서 단편소설과 불교 관련 학술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첫 작품인 「石獅子像」이 『佛敎振興會月報』 창간호(1915.3)에 실린 것을 보면 양건식 문학의 첫 출발지가 불교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모두가 진화와 진보의 열망에 들떠 있을 때 그가 한 걸음 물러나 근대의 ‘분기점(分岐點)’에 비관적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도 불교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는 불교 자체를 ‘위대한 문학’으로 보았다.<sup>14)</sup> “문사는 적어도 사상가의 소질이 있는 후에 인생의 서적을 읽은 사람이라야 한다.”<sup>15)</sup>고 강조한 것을 보면 그가 불교 자체를 ‘지고지대(地高至大)한 문학’이라 지칭한 것은 문학적 수사 그 이상의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결구의 웅대함과 사상의 심원함’이라 언급한 『維摩經』이 그에게 끼친 영향은 컸다. 이 경전은 고대인도의 상업 자유도시 바이살리(베살리Vesāli)에 살고 있던 재가신자(在家信

14) “『유마경(維摩經)』을 봄에 이르러 그 결구의 웅대함과 사상의 심원함과 그 회곡적 표현의 교묘함에 경탄하여 불교란 이 우주간에 한 지고지대(地高至大)한 문학이로구나 하였다.” 「인류를 구제하는 종교」, 『佛敎』 제50·51 합번호, 1928, 9, 『양백화문집3』, 강원대학교출판부, 104~105쪽.

15) 나는 오직 땀만 - 문단에 대한 요구, 『동아일보』, 1922, 1·5.

者)인 유마거사(維摩居士)를 중심으로 한 회곡풍의 대승불교 경전이다. 유마거사는 『般若經』이 밝힌 ‘空’과 ‘不二’의 사상을 중심에 두고 불이적실천행(不二的實踐行)을 설파한 인물이었다. ‘不二思想’을 기저로 펼쳐지는 불이적실천행이 『維摩經』이 제시하는 삶의 궁극적 지점이다. ‘상의상존(相依常存)’의 ‘관계론’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상이야말로 양건식의 사상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라 할 수가 있다.

그의 주요 활동시기(1910~1930)를 통해 수용한 진화사상을 비롯한 상호부조론·생명주의, 나아가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등은 모두 이 ‘不二思想’과 끊임없는 회통(會通) 속에 산출된 것이었다. 동아시아 전통 불교사상을 통한 서양사상의 체인이라 할 수 있다. 양건식이 칸트의 철학사상을 유식불교(唯識佛敎)를 매개로 번역·소개한 『西哲康德格致學說』<sup>16)</sup>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건식의 불교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처음 작품을 발표하면서부터 사상편력의 끝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데, 그것은 단지 좁은 의미의 철학이론만이 아니라 폭넓게 정치·종교·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났다. 즉 그가 수용한 불교철학은 정태적이지 않고 당대의 순한 담론들과 교감하면서 동태적 사상발전의 단계를 추동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양건식의 사상계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17)</sup> 이

16) 『西哲康德格致學說』은 1915년 『佛敎振興會月報』(제1호-7호)에 연재한 것으로 중국의 량치차오(梁啟超, 1873~1929)가 1903년에 쓴 『近世第一大哲康德之學說』을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량치차오가 일본의 나가에 초민(中江兆民, 1847~1901)이 1886년 알프레드 푸이에(Alfred Fouillee, 1838~1912)의 『L'Histoire de la philosophie』를 기초로 문부성 편집국에서 『理學沿革史』란 제목으로 번역한 것 중 칸트 부분만을 발췌, 여기에 나름의 의견을 추가해 번역한 글이다. 알프레드 푸이에에는 프랑스 제3공화정시절 ‘사회자유주의’ 이론구축에 앞장섰으며, 레옹 빅토르 오귀스트 부르주아(Leon Victor Auguste Bourgeois, 1851~1925) 같은 급진 정치인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 책 번역과 관련한 필자의 논문에서는 정작 나가에 초민보다 일본근대불교의 개척자로 평가되는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 1858~1919)를 더 많이 언급했다. 량치차오와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양건식 모두 불교를 통해 칸트를 재해석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즐고, 『1910년대 한국근대소설이 보여준 사회진화론과 근대 극복의지의 한 양상, 양건식의 사상과 문학세계(1) - ‘西哲康德格致學說’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2집,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16를 참고하기 바란다.

17) 앞서 지적했듯이 고재석, 『백화 양건식 문학연구(I)-3.1운동 이전까지의 생애를 중심으로』; 양문규, 『슬픈모순과 비판적 사실주의 문제』; 『1910년대 한국소설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 한점돌, 『양백화 소설의 모순의 미학』 등에서 양건식을 평가하고 있으나, 그의 사상의 편력에 대해서는 불교와 근대인식·사회진화론 수용의 문제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 깊이 있는 연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장에서는 진화론·상호부조론·생명주의, 나아가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등 폭넓었던 양건식의 서구사상 수용의 궤적을 추적하고자 한다.

### 1) 사회진화론, 양건식과 키요자와 만시

양건식은 경계적 지식인이었다. 근대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서구가 던져준 근대의 ‘진화’와 ‘진보’의 신화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당대 지식인들에게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양건식처럼 시종일관 오도된 진화론,<sup>18)</sup> 즉 사회진화론과 맞대결한 인물은 드물었다.<sup>19)</sup> 한·중·일 동아시아 진화론 수용을 논할 때 불교계에서는 일본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 1858~1919) → 중국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 → 한국 한용운(韓龍雲, 1879~1944) 등의 계보의 선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up>20)</sup>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노우에 엔료의 ‘불교적 진화론’이 그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강력한 국가주의에 기초한 사상이었다. 량치차오가 이것을 그대로 수용했는가 하는 것이 쟁점으로 다가온다. 필자는 일본발 국

18) 지금도 많은 이들은 ‘진화 = 진보’로 진화론을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다윈 진화론의 ‘자연선택 (natural selection - 이 말을 사회진화론의 선구 스펜서 등은 자연도태로 표현했다. 자연도태는 다윈의 언어가 아닌, 사회진화론자들이 만든 용어였다.)’ 하나의 현상을 사회 전체에 적용한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입각한 사회진화론의 패러다임으로, 이러한 이해방식은 다윈의 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오히려 다윈의 이론은 진화와 진보의 관련성을 절연시키는 것에서 출발했다. 다윈의 진화론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목적론적 세계관에 일대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윈이 밝힌 생명체의 진화는 관계이자 또한 과거로부터 긴 시간의 누적이며, 시간의 전개에 따른 창발적(emergence) 적응을 말한다. 다윈 스스로 밝혔듯이 진화론은 기존의 실체론적인 형이상학을 버리고 ‘변화’와 ‘우연’이라는 것을 역사의 기준으로 놓았던 첫 시도였다. 실체론에 근거를 둔 사유방식은 미래로 가면 유토피아가 있으며, 천년왕국이 있고,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이니 미래는 항상 진보된 것이라는 시간관을 갖게 한다. 근대의 시간관과 매우 흡사한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목적지향적 생명관을 부정했다. 이 지점에서 양건식 인식론의 뿌리인 불교철학은 사회진화론이 아닌, 다윈의 진화론과 만나는 지점을 형성한다. 진화론은 시간의 철학이자 변화의 철학이다. 진화론적 사유구조는 변화·무목적성·시간의 비선형성·존재의 동등성 등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불교철학 또한 이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 참고, 『1910년대 한국근대소설이 보여준 사회진화론과 근대극복의지의 한 양상, 양건식의 사상과 문학세계(1) - 「西哲康德格致學說」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122~123쪽.

20) 김제란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한중일 근대불교의 사회진화론에 대한 대응양식 비교 - 동아시아 불교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비판의 두 흐름』, 『시대와 철학』 제21집,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기주의 사상을 그대로 량치차오의 계몽주의와 등치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량치차오는 이노우에 엔료의 근대적 불교해석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것일 뿐 그의 강고한 국가주의에는 거리를 두었고,<sup>21)</sup> 량치차오의 영향을 받았던 양건식의 진화사상 또한 이노우에 엔료와는 차이를 드러냈다고 본 것<sup>22)</sup>이다. 오히려 이노우에 엔료보다는 키요자와 만시(淸澤滿之, 1863~1903)를 상정할 때 양건식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체계가 더욱 선명해진다는 생각이다.

키요자와 만시는 ‘정신주의(精神主義)’로 잘 알려진 메이지시대 불교사상가이다. 현대에 들어 그가 소속했던 정토진종(淨土眞宗) 등 불교계를 넘어 일반 사상계에서도 재조명되고 있는 인물이다. 그에게는 이노우에 엔료의 불교계몽주의, 즉 강한 국가주의에 바탕을 둔 불교사상을 넘어서고자 하는 비판적 의지가 강했다. 메이지 20년대(1887년부터) 이노우에 엔료에 의한 불교 부흥계몽운동에 이어 메이지 30년대 후반(1900년대) 불교계에 새로운 혁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하나가 키요자와 만시가 주창한 정신주의였다. 2000년대 들어 일본 사상계에서는 이노우에 엔료보다 그의 사상에 더욱 주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sup>23)</sup> 독실한 불교도이자 연구자였던 양건식이 메이

21) 한일 구분 없이 많은 연구자들은 이노우에 엔료 사상의 배경을 이루는 국가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이노우에 사상은 불교 전체를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새로운 관점에서 고쳐보고자 하는 점에서 매우 참신한 것이었고, 개혁적이면서도 계몽적인 혁신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논리적 사고에 세워진 신앙철학과 주체적 신앙의 확립을 지향하는 불교와 차원이 다른 성격과의 혼동은 피할 수 없었고, 그 점에서 반드시 불교 자체의 새로운 시도라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카시와라 유센(柏原祐泉), 원영상·윤기엽·조승미 옮김, 『일본불교사근대』,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117쪽. 일본의 이러한 지적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호국(護國)·애리(愛理)·배야(排邪)의 세 가지 특징으로 추릴 수 있는 막부말기 일본불교가 위기 속에서 모색한 호법·호국·방사 일체관 계열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구습(舊習)의 체질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윤종갑·박정심, 『동아시아의 근대불교철학』, 『철학논총』 제75집 제1권, 새한철학회, 2014, 417쪽.

22) 이와 관련해 필자는 『1910년대 한국근대소설이 보여준 사회진화론과 근대극복의지의 한 양상, 양건식의 상상과 문학세계(1) - 『西哲康德格致學說』을 중심으로』(『한국학연구』 제4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를 통해 량치차오와 이노우에 엔료의 사상을 살피고, 이들과 양건식의 사상의 동일성과 차별성을 논증한 바 있다.

23) 앞서 언급했지만 이노우에 엔료에 대한 일본 내 후대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가 않다. 특히 미네시다 히데오(峰島旭雄) 등 일본의 상당수 불교연구자들은 이노우에 엔료보다는 키요자와 만시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엔료의 종교관과 불교관은 절충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열정적이며, 너무 단순하게 애국과 결부시켜서 종교관으로서 주체적인 자각의 측면이 희박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노우에 엔료의

지시대 대표적 불교사상사가인 이들을 몰랐을 리 없을 터다. 그는 1910년대 『佛敎振興會月報』·『朝鮮佛敎界』·『朝鮮佛敎叢報』 등의 불교잡지 기자로 활동하면서 단편소설과 불교 관련 학술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1910년대 조선의 불교계는 사찰령·본산제도·사업 등의 불교정책이 수립되고 30본산주지회의·연합사무소 등 교계 대표기구들이 설립되었으며 대중포교를 위한 잡지 및 불서들이 간행되기 시작되던 시기였다. 본격적인 불교 근대화 작업이 출발하던 시기로 젊은 승려들의 일본 유학이 본격화 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양건식의 글에는 이노우에 엔료의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고 키요자와 만시와의 연결지점만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것은 사회진화론을 강력 비판했던 키요자와 만시와 사상적으로 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노우에 엔료와 키요자와 만시 둘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때 양건식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이 더욱 선명해질 듯싶다.

둘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은 대조적이었다. 모두 ‘진화론적 불교’, 또는 ‘불교적 진화론’을 제기했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주의에 대한 인식태도에서는 선명한 대립각을 보였다. 이노우에는 ‘호국애리(護國愛理)’의 기치 아래 불교적 진화론을 활용하여 명치의 국가주의를 떠받쳤다. 국가를 최우선 가치에 두었던 것이다.<sup>24)</sup> 이노우에 엔료는 진화론과 불교를 통한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면서 죽음으로 국가와 임금 은혜에 보답하면 그에 따른 보증으로 내세 이후에도 진화가 영속된다고 주장했다. 즉 그의 사상은 한 마디로 호국(護國)에 바탕한 애리(愛理)였던 터다. 키요자와 만시는 국가보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했다. 특히 물질문명의 진화를 경계했다. 이러한 그가 그의 시대에 대세를 장악했던 사회진화론을 비판하고 ‘정신적 진화’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즉 이노우에 엔료는 사회진화론을 적극 수용, 자유민권사상을 부정하고 국가이데올로기의 확립에 몰두했다면 키요자와 만시는 사회진화론을

단점을 보완해 참된 의미의 근대적 종교관을 세운 인물이 키요자와 만시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4) 그는 전쟁마저도 인정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도 없고, 평화가 없으면 전쟁도 없다. 따라서 나는 사회의 진보가 없으면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으면 전쟁도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나에게 사회의 진보는 평화와 전쟁, 전쟁과 평화가 전후로 바뀌면서 변천하는 것이다.” 이노우에 엔료 『戰爭哲學—斑全』, 哲學書院, 1894, 8~11쪽.

적극 비판하는 불교적 진화론을 제기하고, 자유민권사상을 지지하여 국가이데올로기를 불교적 입장에서 비판했던 것이다.

키요자와 만시의 정신주의는 그가 1901년 창간한 『精神界』 창간호에 실린 『精神主義』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의 정신주의와 정신개혁은 근대 문명이 이루어 낸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 특히 인간성과 주체성의 상실 및 가치전도의 현실을 비판했다. 당대 현실을 간파한 종교인의 고뇌와 이상이 담긴 실천적 운동임을 천명한 것이다. 키요자와 만시와 양건식 모두 근대 그 자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키요자와 만시의 정신주의는 유한한 개인(我)과 절대무한자(絶對無限者)인 여래(如來)를 상징하여 양자를 상대화시키고 개인의 정신 안에서 절대무한자를 신앙함으로써 자타(自他)가 해소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양건식 또한 불교에 귀의(歸依)했다.<sup>25)</sup> 양건식은 여러 산문에서 '정신적 삶'을 강조했다. 양건식이 불교에 입문하고 난 후에도 상당기간 진화론의 원리와 불교의 원리 사이에서 내면적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고 이것을 사상과 실생활의 모순, 즉 '나'와 '나의 나'의 충돌이란 시각<sup>26)</sup>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양건식은 시종일관 사회진화론과 근대에 대해 깊이 회의했다. 즉 진화론과 불교사상의 모순을 직시한 것이 아니라 양건식 그에게는 근대 그 자체가 이미 '모순'과 불구'로 다가왔고 이를 극복해 가는 방법의 하나로 '정신적 삶'을 지향했던 것이다.<sup>27)</sup> 아래의 글들은 키요자와 만시와 양건식이 근대문명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은 물질문명의 진화가 큰 시대이다. 물질진화는 단순함을 낮게 보고 복잡

25) 『佛敎』 제50·51호 합본(1928, 9)에 실은 『인류를 구제하는 종교』에서 양건식은 “불교는 인류를 구제하는 종교다.(…)다른 종교는 모르지마는 성가의 교는 과거에 있어 언설로 다 할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하였고 현재에 있어 진미래제(盡未來際)까지도 그러할 종교다..”라면서 불교의 우월성을 넘어 신앙으로 불교를 바라보았다. 양건식은 불교를 단순 철학이 아니라 신앙으로 깊이 믿었던 터다. 이것은 키요자와 만시에게서도 강하게 나타나는 점이다.

26) 한점돌, 『양백화 소설의 모순의 미학』, 『인문논총』 제9집, 호서대학교, 1990; 『1910년대 한국소설의 정신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27) 줄고, 『1910년대 한국근대소설이 보여준 사회진화론과 근대 극복의지의 한 양상, 양건식의 사상과 문학세계(2)』, 『한국학연구』 제47집,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17, 323쪽.

함을 높인다. 그래서 근세의 진화론자는 단순함을 버리고 복잡함을 쫓지만 이것은 정신진화와는 반대다. 정신진화는 복잡함을 하나로 합쳐 단순함에 이르고 갖은 차이를 해석하여 불교의 진여(眞如)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수도(修道)의 본디 뜻인데, 근세 인간의 지혜는 이와 다르게 분석의 길에 민감하다.”<sup>28)</sup>

자연과학의 발흥과 물질문명의 진보는 인생의 행복을 증진함이 막대하지만 일리(一利)가 있으면 일 해(一害)가 있는 것(…)기계를 이용하는 결과 기계의 움직이는 대로 몸을 뺏기기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결국은 정신의 평형을 잃고 조화를 깨뜨려 일면만 유난스럽게 예민하여 불구자 비슷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말하자면 정신의 평형·조화를 잃는 것이 소위 문명병의 최대 원인이니 이것이 현대문명의 일대 결함이라 생각한다.<sup>29)</sup>

둘 모두 근대 물질문명이 주는 폐해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신진화’와 ‘정신의 평형·조화’를 강조했다. 시차는 존재하지만 양건식과 키요자와 만시의 시대는 ‘진화’와 ‘진보’의 신화가 들끓었던 ‘문명의 시대’였던 점을 고려할 때 당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사회진화론에 정면 맞대응했던 이들의 인식태도는 간단히 보아 넘길 것이 아니다. 사회진화론을 상징했던 적자생존·우승열패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보였다.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삼키는 것은 주이주의(主我主義)의 결과이다. 생존경쟁·우승열패는 주이주의의 결과이다. 오늘날 세대의 논자는 왕왕 이 주의에 돌아간다. 탄식을 금할 수 없다.<sup>30)</sup>

양건식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그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1910년대는 ‘생존경쟁·우승열패’ 등으로 상징되는 사회진화론의 파고(波高)가 강했

28) 키요자와 만시, 『清澤滿之全集』 第四卷, 岩波書店, 2003, 111~116쪽 참조.

29) 양건식, 『文藝漫談』, 『매일신보』, 1932.11.20. - 12.6, 남윤수·박계연·김영복 편, 『양백화문집』 3, 강원대출판부, 1995, 42~43쪽.

30) 키요자와 만시, 위의 책, 第七卷, 72쪽.

던 시대였다. 그 또한 이 시대를 탄식했다. 양건식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방도는 무엇이이었을까? 역시 불교의 보시(布施)를 통한 회석(會釋)의 세계였다.

“제 돈은 제 제갈량이라. 남의 돈이 일 푼 척이라도 저를 위하여 쓰지 아니할 생각이오, 또한 쓸 것이 아니니 제가 못 버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 사람 되어 가지고 이르는 곳마다 웬 세상 이 모두 다 돈이니 이것을 찾아 쓰는데 무슨 상관있누! 그런데 없다고 하는 것은 제 재물 제가 못 찾아 쓰는 한 변변치 못한 약자라. 약자라는 것은 생존상에 적당치 못한 물건이니, 자연 멸명(滅命) 하는 수밖에 무슨 다른 도리 없는 것이오.”<sup>31)</sup>

양건식이 『佛敎振興會月報』 창간호(1915.3)에 처음 발표한 단편 『釋師子像』의 주인공 김재창은 ‘우승열패 · 적자생존’의 수사학에 매몰된, 사회진화론으로 무장한 철저한 자유방임주의자로 그려진다. “그러기에 나는 자선도 아니하고 보시(布施)도 아니하여 남은 위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결단코 아니할 결심이오, 받지 않는 동시에 또 주지도 아니하는 것이 내 주의라. 아무리 보시를 하나 자선을 하나 약자는 자연 멸명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보시가 모두 다 무효한 일이야…….”<sup>32)</sup> 김재창은 또한 철저히 자기애와 자기이익에 빠져있는 주이주의(主我主義)형 인물이다. 불교의 세계는 다르다. 세계의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 상의상존(相依常存)의 관계를 맺고 있다 강조하는 불교에서는 자기만의 이익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석사자상의 의미가 선명히 떠오른다. 석사자상 앞에 다다른 김재창과 그의 아내는 보시를 통해 자기애와 자기이익에서 빠져나오는 반전을 보인다. 석사자상이 등장하면서 소설의 분위기는 전과 후로 완전히 바뀐다. 석사자상은 보시를 통한 회석(會釋)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불교의 상의상존(相依常存)의 관계론은 키요자와 만시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31) 양건식, 『석사자상』, 김복순 편저, 『슬픈 모순(의)』, 범우, 2004, 71쪽.

32) 양건식, 위의 책, 같은 쪽.

만약 진화론이 투쟁이라는 의미의 논의라면, 그것은 세계의 실상을 오해한 것이다. 진화의 중심점은 적자생존(適者生存)에 있다. 결코 경쟁으로 승부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적합함(適)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적합한 것이 아니다. 자타쌍방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본래의 적합함 이 아니다. 비꾸어 말하면 공동(共同)·공공(公共)의 정신에 적합한 것이 본래의 적합함이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자기의 사적인 욕망에 적합하기 위해 생존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 인물이 사회의 사정(事情)에 적합하기 위해 생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사정이란 결코 외부의 것만은 아니고, 공동·공공의 사정이다.<sup>33)</sup>

키요자와 만시와 양건식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는 상의상존(相依常存)의 관계론을 공유했던 것이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緣起法)으로부터 나온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붓다는 선형적 인과율을 비판하고 연기법이라는 새로운 인과율을 제시했다. 붓다는 인과관계를 선형적 일방적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관계로 보았다. ‘나와 남’,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즉 ‘자타불이(自他不二)’, 상의상존(相依常存)의 불이적(不二的) 평등관, 이것을 통해 양건식은 그의 시대에 강고했던 사회진화론을 극복하는 길을 찾고자 했다. 이렇듯 문면(文面)에서는 키요자와 만시와 양건식을 나란히 놓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 정확한 텍스트 비교·분석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실 앞에서 다음의 우회경로를 통해 양건식과 키요자와 만시와의 지적 네트워크를 다시 추론해 보기로 하겠다. ① 양건식이 관립한성일어학교 출신으로 일어에 능통했다는 것과 ② 독실한 불자(佛子)이자 불교 연구자였다는 점 등을 통해 양건식과 키요자와 만시와의 연결점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양건식의 이력, 특히 학력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특히 양건식 사상형성 과정의 일단(一端)을 엿볼 수 있는 그의 해외 유학 여부는 중요할 수

33) 키요자와 만시, 앞의 책 第一卷, 293쪽.

밖에 없다. 이것이 일본이고, 유학의 배경이 밝혀진다면 양건식 연구에 한 발 다가서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건식의 학력은 모호하게 추정되어 왔으나 중국어 학교인 관립한성한어학교가 아니라 관립한성일어학교에서 수학했다. 양건식은 1907년 3월 29일에 배출된 관립한성일어학교 제9회 졸업생 서른다섯 명 가운데 하나였다.<sup>34)</sup> 박진영에 앞서 양건식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인 1977년 조문제는 양건식이 1904년 2월에 입학, 1907년 3월 관립한성일어학교를 졸업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sup>35)</sup> 양건식 연구의 물꼬를 튼 고재석마저 이것을 확인치 않고, 양건식이 1909년 관립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추정했다.<sup>36)</sup> 양건식이 다년간 중국 유학을 했다는 설(設) 또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 또한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sup>37)</sup> 남은 문제는 양건식의 일본유학이지만 그 유무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자전적 작품인 『出發』(1927)에서 일본유학 경험을 회상했지만 훗날 『三千里』 제7권 10호(1935.11)에 ‘한성관립학교 나온 뒤 각지로 다녔 유학 관리 생활 일사’란 다소 모호한 이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진영은 양건식이 만약 일본유학을 했다면 1910-1914년이라 추정했지만 구체적 논거는 밝히지 않았다.<sup>38)</sup> 『朝鮮佛教月報』 제1호(1912.2.25) 잡보(雜報)란에 보면 ‘1912년 1월 26일 경성 중부 박동 각황사에서 거행된 석가세존 성도기념식’ 차례가 나오는데 찬연(讚演) 명단에 양건식의 이름이 올라있다. 여기에는 불교계에서 세운 명진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거사불교운동의 핵심이 되는 이능화(李能化)를 비롯해 이강영(李康英)·현제용(玄濟用)·최병두(崔秉斗)·윤태흥(尹泰興) 등 불교계 핵심들과 후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당시 23세였던 양건식이 1912년 이 찬연에 명단을 올렸다는 것은 1912년 이전부터 불교계 핵심들

34) 박진영,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성립의 기원과 역사성』, 『탈경계인문학』 제7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4, 20쪽.

35) 조문제, 『韓末의 日語學校教育의 研究 - 서울의 官立日語學校를 中心으로』, 『서울교육대학논문집』 제10호, 서울교육대학교, 1977, 42쪽.

36) 고재석, 『백화 양건식 문학연구(1)-3·1운동 이전까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12집,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1989, 6~7쪽.

37) 이시환, 앞의 논문, 4쪽.

38) 박진영,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계보와 역사적 성격』, 『민족문학사연구』 제55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주석 22, 134쪽.



과 교유했으며 이것은 일본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럼, 그 이전 양건식의 행적은 어떠한가. 앞서 언급한 조문제의 논문에 관보(官報)·관립한성외국어학교 일람(一覽)·대한제국관원이력서(大韓帝國 官員履歷書) 등을 자료로 1895년에서 1908년까지 일어학교 119명의 졸업생에 대한 일람표가 나온다. 여기에는 졸업생의 성명·입학연월·졸업연월·취업·연령 등이 상세히 나타나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사회진출의 경우 1회(1897.12)부터 8회(1906.6)까지 졸업생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탁지부(度支部) 등 행정기관이나 교육계 등으로 진출했다. 양건식이 졸업한 9회의 경우 또한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행정기관이나 교육계에 투신했다. 양건식의 경우 해당 사항이 공란(空欄)으로 나온다. 이것은 양건식이 졸업 직후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미뤄 볼 때 만약 양건식이 일본 유학을 했다면 1910년 이후부터가 아니라 1907년 이후 또한 가정에 넣어야만 될 것이다. 여하튼 관립한성일어학교 졸업 직후인 1907년부터 행적이 묘연한 1912년까지를 유학시기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이능화와 양건식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둘의 행적이 겹치는 지점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① 양건식의 일어학교 시절과 이능화의 외국어학교(범어학교) 근무시기가 겹치고 또한 ② 둘이 각항사에 동시 찬연하는 등 이능화의 불교계 활동과 양건식의 문필 활동이 본격화 한 시기마저 일치하고 있다. 특히 각항사를 본거지로 1914년 발족, 1915년 1월 1일 본산(本山) 주지와 50여 명의 거사(居士)가 참여해 창립한 불교진흥회 기관지 『佛敎振興會月報』의 발간책임과 편집을 이능화와 양건식이 각각 맡았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후에도 『朝鮮佛敎叢報』(1917.3~1921.1, 통권22호) 주요 필진으로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③ 이능화가 소설창작을 시도했다는 사실<sup>39)</sup> 또한 둘의 행적이 우연의 일치

39) 그가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능화의 「목우가」(『조선불교총보』 1호, 1917.)는 자전적 체험을 그린 것이며, 한학, 불교, 서구문명을 가로지르는 다채로운 상상력을 보여준다. 그는 1910년대 주류 문단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소설사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양건식과 이능화의 관계는 양건식이 관립한성일어학교를 나날 때부터 시작할 것 아닌가 한다. 이능화는 한국이 일본에 병합됨에 따라 1911년 초 관립한성의국어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13여 년간 법어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그는 교관으로 승진했고 1908년에는 관립법어학교장이 되었다. 1년 뒤 그 상급기관인 관립외국어학교 학감(부교장)으로 영전했다. 그는 법어학교에 근무할 당시인 1907년 정부 관원 30명을 일본에 파견할 때 선발되어 도쿄에 100일간 체류한 일도 있다. 그는 10년 뒤 쓴 회상기에서 “나는 도쿄의 좋은 기념이 지금토록 불민(不泯)하며, 시찰한 좋은 이익이 지금까지 현전(現前)에 응용되는 터이다”라고 술회한 바 있다. 이 회상기가 『朝鮮佛教叢報』 제6호(1917)에, 그것도 『内地에 불교시찰단을 送함』이란 제목으로 기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회상기는 이능화가 불교시찰단의 출발에 즈음하여 일본불교가 어떻게 세계 제일이 되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내용이었다. 다음 호인 7호에는 불교시찰 기념호로서, 시찰 관련 일지, 일본불교의 현황과 소감을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7호 휘보(彙報)에 따르면 8월 31일에 출발, 9월 24일 경성에 도착한 사실과 환영회를 소개하는데, 참석 명단에는 이능화와 함께 양건식이 들어 있다. 당시 환영회에는 이완용이 참석하는 등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모였던 것으로 양건식 또한 불교계 핵심인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능화가 일본을 방문한 1907년은 양건식이 한성일어학교를 졸업하던 해로 이때 이능화가 양건식을 동반시켰고, 이것이 양건식 일본 유학의 계기를 던져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가 있다. 만약 그가 일본 유학을 했다면 일본불교 관련 서적을 탐독했거나 귀국 길에 가지고 왔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서적을 통해 이노우에 엔료와 키오자와 만시 등 메이지시대 불교사상가들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1910년대 후반 이후 양건식이 불교잡지에 기고한 불교 관련 글들은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정식 학교가 아닌 비정규학교에 적을 두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다.<sup>40)</sup>

필자는 양건식의 앞선 세대였던 이인직의 일본 유학 또한 정식 유학이 아

닌, 사설 강습소에 잠시 적을 두었던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아마카와 히토시(山川均), 『ある凡人の記録』, 『日本人の自伝』(平凡社, 1982)와 다나가 히데오(田中英夫), 『山口孤劍小伝』(花林書房, 2006) 책 내용 중 동경정치학교와 관련한 부분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동경정치학교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재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라 보았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동경정치학교 유학을 이인직 해석의 지렛대로 삼아왔던 것에 비춰볼 때 이 문제는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동경정치학교가 익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강습소 정도였다는 사실과 잦은 폐강과 교사(校舎)의 이전 등이 겹치면서 강사수가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동경정치학교의 실상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동경정치학교에 적을 두었던 일본인들의 회고에 따르면 이인직 이력서에 나오는 동경정치학교 유학 기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인직과 동경정치학교의 관계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를 던져준다.<sup>41)</sup> 이인직의 일본 유학은 학업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거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라 한일병합을 전후해 일제를 위해 활동한 정치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외는 다르지만 양건식이 일본 유학을 했다면 그의 도일(渡日) 또한 조선 불교계의 내밀한 지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여하튼 양건식의 일본 유학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사안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40) 『出發』에 보면 “나는 아주 외로웠다. 아주 경험이 없었다. 나는 의논할 만한 이도 없었고 속말할 친구도 갖지를 못했다. 말하자면 나는 끝이 없는 인생의 거친 들을 어디로 가는 행방도 없이 헤매는 한 나그네였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일본에 유학했다고 가정해 볼 때, 정규학교에 적을 두었다면 당시 일본 유학생들과 교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41) 이에 대해서는 즐고, 『이인직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재고찰』,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참조.

## 2) 양건식과 오스키 사카에, 그리고 베르그손

양건식의 시론·문예평론 등 산문을 보면 단테·괴테를 비롯해 칸트·니체·칼라일·오이켄·베르그손·모파상·입센 등 숭한 서양의 철학자·문인들이 등장한다. 그는 당대 누구보다도 서구사상을 통한 동아시아 근대담론의 형성과 지식장(知識場) 전환에 민감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은 프랑스의 대표적 생(生)철학자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 1859~1941)이다. 여기에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1842~1921)까지 포함시키면 양건식의 서구근대사상 수용의 대강(大綱)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들로 양건식의 서구사상 수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건식은 서구사상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칸트의 철학사상을 번역한 『西哲康德格致學說』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한국인들이 서양의 철학사상을 본격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그때 최초로 부딪친 것이 바로 칸트의 철학이었다. 한국에서 전문적인 서양철학 연구가 개시된 시점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 설립으로 잡는다면 1910년대 학술사정에서 칸트철학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다. 비록 중국의 량치차오의 저본을 통한 번역이었지만 유식불교(唯識佛敎)를 비롯한 양명학을 바탕으로 칸트의 재해석을 수용했다는 점은 동아시아 근대불교를 통한 서구사상의 습합(習合)으로 평가할 만하다.<sup>42)</sup> 이후에도 그는 중국과 중국문학을 연구하면서 천두슈(陳獨秀)·후스(胡適)·루쉰(魯迅)·우위(吳虞) 등 중국 근대의 혁신을 지향했던 개혁적 인물들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이 수용한 서구사상을 중국의 문학·사상혁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에 집중했던 점은 양건식이 그의 시대에 동아시아 한·중·일 사상연쇄에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지 미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42) 이에 대해서는 줄고, 『1910년대 한국근대소설이 보여준 사회진화론과 근대 극복의지의 한 양상, 양건식의 사상과 문학세계(1) - 『西哲康德格致學說』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2집,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16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함에도 베르그손과 크로포트킨, 이들의 철학이 중요한 것은 191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까지 연결되는 상호부조론·생명주의·개인주의·아나키즘·교양주의, 사회주의까지 실로 다양한 근대 담론들과 연결되는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건식은 산문 곳곳에 이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들을 수용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무한한 생명’·‘생명력의 발현’·‘생명의 빛’·‘생명의 열’·‘생명의 비등’ 등 베르그손이 강조한 생명에 대한 언표들, 그리고 크로포트킨이 주장했던 평등과 인간해방에 대한 염원 등이 그것들이다. 양건식의 서구사상 수용은 대부분 일본 텍스트를 통해서였다. 그렇다고 그를 일본편향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sup>43)</sup>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일본의 다이쇼(大正)시대 대표적 아나키스트이자 사회주의자였던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1885-1923)이다. 서로 통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해도 양건식이 그와 ‘사상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양건식의 글에서 오스기의 흔적은 베르그손과 그의 어법만큼이나 자주 등장한다. 오스기 사카에가 베르그손의 철학을 자신의 사상적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와 양건식의 사상적 네트워크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의 개인적 교류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텍스트를 통한 네트워크는 가능했을 터다. 오스기 사카에 또한 텍스트를 통해 막스 슈티르너, 니체, 베르그손, 조르주 소렐 등 서구의 아나키즘과 연결되어 있었다. 근대적 인쇄미디어의 전지구적 네트워크와 그 유통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sup>44)</sup>

43) 양건식의 중국 신문화혁명의 소개와 현대문학의 번역 활동이 일본 학계의 영향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가 1921년까지 중국의신문화혁명, 신간정보, 속문학 연구동향 등 문단현황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은 일본의 간행물, 특히 『지나학』에 발표된 아오키 마사루(青木正児)의 글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일본학자들이 중국 신문화혁명 및 현대문학에 대해 무관심 했다는 사실이다. 이들과는 달리 아오키는 『지나학』에 「胡適を中心とするある文學革命」을 발표하면서 이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당시 일본학계에서는 특기할 일이라 할 수 있다. 후일에 아오키는 당시 일본에서 중국 신문화혁명 및 현대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때 자신이 광야에서 고독히 걷는 것과 다름없다고 고백한 바가 있다. 青木正児, 『江南春』, 東京平凡社, 1972, 63쪽. 동신, 「양건식의 중국 문학 연구에 대한 비교문화적 고찰: 중국 속문학의 연구를 중심으로」, 서강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82쪽에서 재인용.

44)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세 것발 아래에서-아나키즘과 반식민주의적 상상력』, 길, 2009, 참조.

오스기 사카에는 전문 문인이 아니었지만 그가 주도한 『近代思想』(1912)은 일본의 사상계는 물론 문단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 매체를 통해 평론을 비롯해 서구의 다양한 사조를 번역, 소개했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1902) 또한 그 중 하나였다. 오스기 사카에가 『상호부조론』을 번역한 것은 1917년, 1920·1924년 등 여러 차례다. 오스기 사카에 사후 1927년에 또다시 번역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까지 양건식이 크로포트킨을 읽었다고 명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지식장 전환에 민감했던 그 이고 보면, 다이쇼시대 일본에서 널리 읽혔던 그를 모를 리 없을 터다. 양건식 글에서 그의 흔적을 읽을 수 있기도 하다. 그 매개가 오스기였던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다. 양건식 사상의 중심 기둥이었던 상의상존(相依常存), 불이 사상(不二思想) 등의 관계론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과 짝을 이루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듯 양건식은 오스기 사카에를 매개로 서구사상의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오스기 사카에의 저술에는 ‘생’이나 ‘본능’과 같은 단어가 자주 나온다. ‘생’과 ‘본능’을 억제·억압하는 사회제도 일반을 거부하는 해방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기 사카에는 근대적 과학주의·합리주의를 ‘본능, 의지, 감정, 동경(憧憬)을 무시한 것에 전적(全的) 인간미가 결여되어 있고, 또한 불완전한 인간의 지력과 이성에 지나친 무게를 둔 것이 필연적인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sup>45)</sup> 이와 같은 사유는 근대의 합리주의를 강력 거부한 베르그손에서 비롯한 것이다. 양건식 또한 명시적으로 베르그손을 언급했다. 그는 철학자 베르그손의 말 “현실이 우리의 관능, 우리의 의식에 직접 부딪친다면 예술은 불필요 하다”고 한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자연이 딱 합하여 유통자재(流通自在)하면 우리는 모두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sup>46)</sup> 이어지는 글에서 말 즉 언어를 지칭, 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개념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근대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45) 오스기 사카에, 『勞働運動の哲学』, 『大杉榮全集』第1卷, 大杉榮全集刊行會, 1926, 380~392쪽.

46) 양건식, 『文藝漫談』, 앞의 책, 『양백화 문집』 3, 48쪽.

양건식은 ‘생의 무한대’ ‘무한한 생명’ 등의 표현을 자주 썼다. 오스기 사카에가 말한 ‘생의 확충’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오스기는 『생의 확충』에서 자아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베르그손의 사유에 접근했다. 둘 모두 베르그손을 향했던 것이다. 오스기는 “나의 생의 충실성은 또 동시에 나의 생의 확장이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인류의 생의 확충이다. 나는 나의 생의 활동 속에 인류의 생의 활동을 본다.”고 했다. 베르그손 어법으로는 “살아 있는 유기체는 일정한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차라리 물질적 우주의 전체와 동일시해야 할 것”<sup>47)</sup>이다. 양건식의 어법은 이렇다. “우리들의 가장 열락(悅樂)케 하는 환희는 고통의 환희다. 무한의 생을 향하여 충실을 추구하는 선율에서 흘러나오는 환희는 또 무궁대(無窮大) 한 것이다.”(『타산한 생』) “명일은 우리의 희망이요 내일은 우리의 정토니 가슴속에 울리는 내일이라는 소리는 실로 무한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복음이로다(…)무변의 우(宇) 무한의 주(宙)에 ‘나’는 실로 묘호(渺乎)한 창해의 일속이로다. 접복(摺伏)의 외경이 원래 자연이로대 ‘나’는 천지에 참하여 만물의 화육을 찬하니 나는 이 천지의 주인제! 필경 우주는 즉 나요, 나는 즉 주인제!”<sup>48)</sup> 양건식은 오스기와 베르그손의 사유를 자신의 불교철학으로 수렴했던 것이다.

양건식이 오스기 사카에를 통한 베르그손에 공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불교철학과 베르그손의 ‘생명주의’의 내적 연관성을 들 수가 있다. ‘생명’에 대한 사유를 ‘해석학적’으로 볼 때, 불교철학과 베르그손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았다. 모든 생명의 동등함,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삶에 대한 긍정,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사랑 등이 그것이다. 중국에 베르그손이 널리 수용되기 시작된 것은 신해혁명(辛亥革命)의 좌절로 인한 5·4신문화운동 기간이었다. 이때 중국에는 유식불교(唯識佛敎) 부흥바람이 불었다. 유식사상이란 간단히 말해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세계는 단지 마음의 표상에 지나지 않고, 외계의 사물은 마음의 표상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마음 외에는 어느 것도 존재

47) 앙리 베르그손, 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42쪽

48) 양건식, 『支頤錄』, 『開闢』 제4호, 1920, 9.

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유식론은 종교와 철학사상 중 인식론(epistemology)에 속하는 선(禪)에 관련된 불교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중국 근대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유식불교의 부흥이었다. 이 바람과 함께 중국 지식인들은 베르그손에 환호했다. 세계를 생명의 우주인 동시에 유기체적 전체, 현상계는 무기력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물질계 내부에도 '생명의 흐름'이 관통, 그 흐름이 물질을 유기체로 형성한다는 베르그손의 사유에서 유식불교의 철학적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유식불교 또한 이 우주를 죽어 있는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우주'로 본다는 관점에서 베르그손과 유식불교는 통했다. 양건식은 중국 5·4신문화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는 중국신문화운동의 주역들을 거의 빼놓지 않고, 국내에 소개했다.<sup>49)</sup> 신문화운동을 생중계하듯 거의 동시적으로 운동의 흐름을 번역·소개한 것은 양건식이 동아시아 지식전환에 얼마나 민감했던 인물이었는지 짐작케 한다. 이렇듯 양건식은 인간의 본능에 대한 긍정과 그 창조력을 신뢰하는, 근대 이성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한 주관주의 철학, 특히 베르그손의 생명주의의 중심적 표지를 수용했던 것이다.

### 3) 양건식과 염상섭, 사회주의에 대한 또 다른 시선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양건식과 염상섭을 나란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염상섭과 양건식은 같은 시기, 잡지 『開闢』(1920년 6월 창간)과 『朝鮮文壇』(1924년 10월 창간)에 주요 필진과 합평회 멤버로 참여하면서 사상적 동질성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건식이 오스기 사카에와 베르그손에게서 사상적 영감을 얻은 것처럼 염상섭 또한 오스기 사카에, 베르그손과 사상

49) 특히 1922년 중국의 구어체인 백화가 공식 문어로 정착되는 데 공헌했던 후스(胡適, 1891~1962)에 대한 관심은 더할 나위 없이 컸다. 민국 6년(1917) 1월에 발행한 잡지 『신청년』 제2권 제5호에 실린 그의 「문학개량주의(文學改良芻議)」에 주목, 「胡適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문학혁명」이란 논문을 『개벽』(제5호-8호, 1920. 11-1921. 2)에 연재했다. 지금으로 보면 웬만한 학위 논문(석사)을 뽑치는 분량으로 양건식이 중국 5·4신문화운동에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sup>50)</sup> 베르그손 → 오스기 사카에 → 염상섭, 또는 베르그손 → 염상섭, 오스기 사카에 → 염상섭, 즉 베르그손 · 오스기 사카에 → 염상섭, 이러한 지적 네트워크를 그려 볼 수가 있다. 양건식과 염상섭은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백화 문집』(강원대출판부, 1995) 발간에 편집인으로 참여한 김영복은 양건식의 교류관계(交流關係)를 회고하면서 “백화와 제일 친한 사람은 횡보 염상섭이었다. 횡보와는 통내의 하고 출입하였으며, 성정 괴팍한 횡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죽치고 들어앉았을 때마다 횡보를 끌어내어 새 직장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대부분 사람 좋은 양백화의 노력이었다”고 적고 있다.<sup>51)</sup> 양건식 또한 염상섭과의 인간적 친밀감을 『生長』 제2호(1925.2)에 『廉想涉論』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 글은 “우울성에 다혈질을 겸한 뚱뚱한 얼굴에 또 두툼한 안경을 쓰고 사람을 대하는 모양은 어찌 보면 거만한 듯도 하고 어찌 보면 거북살스럽기도 한데 또 게다가 둔중미가 있게 몸집까지 뚱뚱하다”는 등의 표현에서 보듯 염상섭 문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상기(印象記)에 족하지만 염상섭에게 품었던 우정은 넉넉히 짐작케 하고 있다.

『開關』을 통해 양건식과 염상섭의 사상적 교집합을 발견할 수가 있다. 『開關』은 1920년대 문학의 사상적 지형도를 분석하는 중요한 매체였기 때문이다. 『開關』은 창간호부터 사회진화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sup>52)</sup> 대신 그 자

50) 염상섭이 아니기즘 경향의 사상적 지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과 오스기 사카에, 베르그손과 사상적 영향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밝혀지고 있다.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니기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 잡지『삼광』에 실린 염상섭 자료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43호, 한민족어문학회, 2003; 이종호, 『염상섭의 자리, 프로문학 밖, 대항제국주의 안 두개의 사회주의 혹은 ‘문학과 혁명’의 사선(斜線)』, 『상허학보』 38집, 상허학회, 2013; 박현호, 앞의 논문, 2012; 최인숙, 『염상섭 문학의 개인주의』,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13;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니기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52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황종연, 『과학과 반항염상섭의 사랑과죄 다시 읽기』, 『사이間SAI』 15권,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2013 등 참조.

51) 김영복, 『백화의 문학과 그의 일생』, 『양백화문집』 3, 강원대출판부, 1995, 360쪽.

52) 우리의 과거는 이성의 訴求로는 심히 不思議의 中에 잇사왔도다. 優對劣者行爲, 富對貧者行爲, 智對愚者行爲, 強對弱者行爲, 物質對精神行爲, 모도가 불평등이었고 모도가 不理想이였다. 優者의 措處는 잇었스나 劣者의 해석은 업섯스며 富者의 대우는 잇섯스나 빈자의 제도는 업섯스며 智強者의 무대는 잇섯스나 遇弱者의 낙원은 업섯스나 이것이 과거 사회의 병적 상태이엇스며 과거 세계의 비인도 부정의한 실험이엇도다(6쪽).

리를 ‘強弱共存主義’, ‘病健相保主義’로 대체했다. 앞서 고찰한 대로 시종일관 사회진화론을 거부했던 양건식 또한 이에 호응했을 터다. 관심은 사회주의 수용 여부와 그 양태에 모아진다. 기존 연구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開關』은 초기부터 사회주의 수용과 인민성에 근거한 강렬한 종교적 유토피아즘을 드러냈고, 그 문학의 특질은 천도교 인민주의의 선전 회로로 문학을 활용하는 것이었다는 주장<sup>53)</sup>이 그 하나가 될 터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모두를 수용하면서 거리를 두는 제3의 지점에 방점을 찍었다는 주장<sup>54)</sup>이다. 전자의 주장에 필자 또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이나 좀 더 포괄적이고 다층적 측면에서 『開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문학이란 한 부분에 갇히어 『開關』 주도층의 사상 전반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양건식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보기에 양건식의 『開關』 참여와 대립이 이 지점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잡지창간 초부터 사회주의에 대해 개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잡지의 지향점으로 삼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건식은 이러한 『開關』의 방향성에 공감, 필진으로 참여했으나 후반기에 들어 문학에서 사회주의적 계급론이 급부상하면서 『開關』 문학 편집진들과 불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開關』의 전·후반기를 가르는 지점에서 발표된 『汎人間的 民族主義』<sup>55)</sup>(1923년1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또한

53) 『開關』 문학작품의 성격변화가 사회주의운동과 밀접해진 1923년 후반 이후의 현상이라는 일부의 이해방식은 교정되어야 한다. 『開關』 문학작품이 시기적으로 그 성격이 분절되어 있었다는 관점 또한 마찬가지로. 『開關』은 초기부터 천도교 인민주의 시각에 의해 작가와 작품을 선별했으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적 가치에 접근해가게 되었다. 물론 1920년대 초반은 국내 사회주의운동의 초기인 만큼 『開關』 문학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주의 경향성 또한 그 성격이 뚜렷하지 못했다. 사회주의문학은 1923년 이후 사회주의운동의 고조와 함께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6, 51~52쪽.

54) 허수, 『1920년대 『개벽』의 정치사상-‘범인간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학』 제38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55) 필자미상으로서 1923년 벽두에 간판논설로 발표된 이 글은 이돈화의 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내용 및 주요 개념이나 논리구조 그리고 글의 비중 등으로 볼 때도 그러하거나와 나중에 1920년대 후반이 되면 그가 이전에 전개했던 자신의 개조관련 논의를 事後에 ‘정신개벽·민족개벽·사회개벽’의 3대개벽론으로 정리하는 것에서도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민족개벽은 범인간적 민족주의 단계를 정신개벽은 사람성주의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허수, 『1920년대 『개벽』의 정치사상-‘범인간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학』 제38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319쪽-주석 51.

여기에 있다. 이 글은 잡지 주도층의 민족의식과 정치사상을 대표하는 논설로 평가할 만하다. 가장 큰 특징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장단(長短)을 취산선택, 양자를 지양(止揚)한 제3의 방향을 제시한 것을 들 수가 있다. 이 지점이 양건식과 염상섭이 동의했던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당시 이돈화를 비롯한 『開闢』주체들은 식민지 지식인의 입장에서 민족주의의 배타적 속성을 경계했다. 그들은 민족주의가 자기의 민족만 시인하고 타민족을 멸시·배척한 결과 타민족의 생존권을 침해·약탈한다고 보았다. 그 대표적 예로 식민지를 확장하여 타민족의 토착권을 침해하고 자기 민족의 번영을 시도하는 근대군국주의·제국주의의 발호를 들었다. 그들은 기존의 민족주의가 가진 배타성을 지적하면서도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인류주의가 약소민족의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빠트리지는 않았다. 나아가 그들은 민족주의를 이기적 사상의 결정(結晶)으로, 인류주의(사회주의)를 이타적 사상의 결정으로 보았으나 인습적 민족주의를 절대 배척하는 동시에 극단의 몰아적(沒我的)인 인류주의도 배척했다. 『汎人間的 民族主義』를 통해 잡지 주도층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입장을 각각 비판하면서 양자를 조화·절충하는 입장을 견지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923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던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주의 유물론이 러시아식 반종교운동의 영향을 받아 종교를 반대하는 파라면 자신들처럼 종교적 혁명사상을 가진 천도교 청년파는 ‘해석적 반대파’로서 ‘인습의 허위의 종교를 파괴하고 사람성 자유발달을 기하는 신종교운동을 기하는 자’로 자리매김했다. 자신들이 가진 천도교의 종교적 입지 위에서 사회주의와의 거리를 유지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開闢』주도층이 공유했던 종교적 기반은 민족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과 자신들을 차이화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sup>56)</sup> 종교로서의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 양건식 또한 공감이 컸을 터다.<sup>57)</sup>

56) 허수, 앞의 논문, 320~325쪽 참조.

57) 양건식은 단순한 불교연구자가 아니었다. 불교를 깊이 신앙하는 종교인이었다. 『佛敎』 제50·51 합본호(1928.9) 『인류를 구제하는 종교』에서 “그래서 불교와 더욱 인연이 깊게 되고 또 몇 해 동안 여러 스님과 여러 선생에게 강설(講說) 혹은 교회(敎誨)를 받으며 들으며 또한 내가 내전(內典, 佛

『開關』 후반기(1923.6~1926.8)에 들어서면서 양건식의 이름은 완전 사라지고 만다. 후반기 『開關』 문학의 특징은 박영희·김기진·이상화·이기영·송영 등 사회주의 운동에 경도된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그들의 주도권 장악, 염상섭·김억의 위상 약화, 현철·황석우·양건식의 퇴진 등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이 점에 비춰볼 때 양건식과 염상섭은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에 동조했으나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거부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통 마르크스주의(스탈린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보였던 것이다. 『開關』 후반기 문학 책임이 현철에서 뚜렷한 좌경적 선회를 보였던 박영희에게 넘어간 것은 ‘문학의 이념적 강화’를 내건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지점에서 양건식과 염상섭은 『開關』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이 시점을 계기로 『開關』과 『朝鮮文壇』 간 계급문학을 둘러싼 논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첫 포문은 양건식이 열었다. 『朝鮮文壇』 합평회는 모두 6회 개최했는데 1925년 3월부터 9월까지 지면에 소개되었다. 양건식과 염상섭은 합평회 중심 멤버였다. 이들은 프로소설을 비판하더라도 계급성이나 경향성이 아닌, 심리묘사·플롯·개연성 등 소설적 성취에 초점을 맞추었다. 『開關』은 1925년 6월 『조선문단 합평회에 대한 소감』이란 특집을 마련, 『朝鮮文壇』 합평회를 강력 비판했다. 비판의 화살은 양건식에게 모아졌다. 양건식이 합평회에서 박영희의 소설 「산양개」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계급쟁투니 자본가니 그것은 말고 전편을 보면 훌륭한 창작이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그러면 소설이 아니”라고까지 했다. 이에 박영희는 “계급쟁투니 자본가니”는 말할 것도 없이 나쁘면 그 나쁜 이유도 상당히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계급쟁투는 말하기도 싫어서 일부로 도피하는 모양”이라고 비

---

經)의 문자를 약간 해독하여 선(禪) 교(敎)에 관한 서적을 스스로 읽음에 이르러 이때껏 불교를 교로 안 보고 다른 것으로 본 것을 한 무지한 범부(凡夫)의 망상으로 알았다. 이에 나는 깊이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제자가 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자신이 직접 지은 시구(詩句)로 끝을 맺었다. 我昔所造諸惡業, 皆有無始食嘔痴, 從身口意之所生, 一切我今昔懺悔. 이 시구는 대승불교 이론 ‘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어, 부처와 중생간의 타고난 성품의 차이가 본디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반성하면서 불제자로서 자세를 가다듬었다. 승려 이상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관했다. 박영희는 합평회 자체를 “작품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갖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판을 계급투쟁에 대한 찬반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1924년까지 『開關』문예면의 필자는 특정한 경향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했지만 1925년을 계기로 필진은 거의 박영희·김기진·이상화·이익상·조명희 등으로 채워졌다.<sup>58)</sup>

염상섭 또한 「계급문학시비론-작가로서는 무의미한 말」(『開關』, 1925.2)을 시작으로 당시 대두되고 있었던 프로문학에 대해 비판적 논지를 전개했다. 이 글에서는 “계급문학이 출현되지 못하리라는 것도 아니요, 또 그 출현이 불합리하다는 것도 아니나 다만 일종의 적극적 운동으로 이를 무리하게 형성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면서 “어떠한 주의라든지 일정한 경향에 구속된” 계급문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예술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대한 옹호였던 것이다.<sup>59)</sup> 양건식도 이에 호응했다. 그는 문학의 사상성과 함께 자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강조했다. “문사는 적어도 사상가의 소질이 있는 후에 인생의 서적을 읽은 사람이어야 한다”<sup>60)</sup>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순문학주의를 창도(唱導)한다. 참된 문학이 있고서야 무슨 문학이니 무슨 파니 할 것이다”<sup>61)</sup>라 주장했다. 염상섭은 유물론만으로 세계를 해석할 수 없다면서 유심론을 연결시켰다.<sup>62)</sup> 염상섭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문제를 생산관계의 변형이나 제도의 창출로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의 현실화는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하는 데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의 논지는 당시 사회구성체를 해명하기 위해 유물론이 고착화시켰던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혹은 평행적 구조’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즉 ‘물질적 생산의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인 생활과정 일반을 조건 짓는다’는 사유를 수용하면서도 해체,

58) 이에 대해서는 박현수, 「박영희의 초기행적과 문학활동」,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8, 참조

59) 이종호, 「염상섭의 자리, 프로문학 밖, 대항제국주의 안-두 개의 사회주의 혹은 ‘문학과 혁명’의 사선(斜線)」, 『상허학보』 제38지집, 2013, 35~36쪽 참조.

60) 나는 오직 苦言 뿐., 『동아일보』, 1922, 1·5.

61) 조선의 문학을 위하여., 『매일신보』, 1935, 1.1~1.8

62) 염상섭, 「민족, 사회운동의 유심적 고찰-반동, 전통, 문학의 관계」, 『조선일보』, 1927.1·4~1·16.

또 다른 출구를 모색했다. 인간의 삶에서 물질/정신 영역, 그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것, 즉 각기 영역의 자율성과 평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물론적인 변화만큼이나 유심론적 변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독실한 불자(佛子)였던 양건식이고 보면 염상섭의 유심론적 변화에 공감했을 터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양건식과 염상섭은 『開關』 후반기 문학 편집진과는 다른 제3의 사상지대를 꿈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키요자와 만시·오스키 사카에·베르그손, 그리고 염상섭을 통해 양건식사상의 궤적을 나름 더듬어 보았다. 일본 메이지시대 불교사상가인 이노우에 엔료와 키요자와 만시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 양건식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이 키요자와 만시에 가깝다는 것을 추론했다. 이 과정에서 양건식의 일본 유학과 국내 불교계의 상황을 함께 살폈다. 이를 통해 양건식은 근대문명, 나아가 근대 자체를 깊이 회의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오스키 사카에가 베르그손을 매개로 사상형성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양건식 또한 오스키 사카에를 매개로 베르그손 사상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상상했다. 이것은 근대의 합리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에서 비롯한 생명주의인데, 단순한 ‘생명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아나 키즘 등과 연결되는 근대담론의 저류 중 하나였음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양건식이 크로포트킨 사상에 공명했다는 추론 또한 가능했다. 양건식 사상의 중심 기둥이었던 상의상존(相依常存), 불이사상(不二思想) 등의 관계론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과 짝을 이루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양건식은 오스키 사카에를 매개로 서구사상의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당대 누구보다도 동아시아 지식장 변환에 민감했던 양건식은 불교를 통해 서양사상을 습합(習合), 흔들리지 않는 주체형

성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양건식과 염상섭을 나란히 세워보았다. 인간적 관계를 비롯해 계급문학론에 대한 입장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시선 등이 같은 선상(線上)에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적 유물론의 이념의 잣대로 염상섭 문학을 가두어 두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 속에서 염상섭 문학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따라가면서 염상섭의 문학사적 의미와 함께 우리 근대문학사의 이면으로 남아있는 양건식 문학의 위치를 다시 점검해 보았다. 염상섭에 대해서는 이른바 ‘중간파’ 또는 ‘회색분자’란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어왔다. 그를 상찬(賞讚)한 임화 또한 ‘사회주의’란 전제를 달았다. 염상섭은 사회주의 문학이라는 새로운 단계 직전에 존재한 최상의 작가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도 갈수록 염상섭 문학의 문학사적 성격에 대한 재구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기형의 논지 또한 우파/좌파의 이원론적 대립구도를 문제 삼고 있다. 그의 논지는 ‘염상섭과 아나키즘’이라는 문제의식은 근대문학의 구도와 관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파장을 제기했고, 이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우파적 민족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프로문학이라는 이해방식의 재조정될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염상섭과 아나키즘’이라는 발상은 우파적 민족주의와 좌파적 프로문학이라는 이원론적 구도에 제삼의 입장을 첨가함으로써 임화의 신문학사의 구도에 사로잡혀 왔던 1980년대 이래 근대문학 연구의 경향을 넘어선 중층적 사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본 것이다.<sup>63)</sup>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권철호는 염상섭이 카프계열 논자들과 논쟁과정에서 쓴 「階級文學을論하야 所謂 新傾向派에 與함」(조선일보, 1926.1.22.-2.2)을 거론하면서 염상섭이 이념과 경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창작의식이 확보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염상섭의 자연주의에는 자기 반역을 통한 주체의 재정립이라는 문제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맑스주의와 민족주의 진영

63)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잡지 『삼광』에 실린 염상섭 자료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4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

을 가로지르는 제3의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것<sup>64)</sup>이 그 하나의 사례일 수가 있다. 이종호 또한 염상섭은 일제 식민권력과도 불화하며 긴장관계를 형성했으며, 일제의 주요 저항세력이었던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자들과도 격렬한 논쟁을 전개하면서 민족주의자 및 우파 이데올로그들과도 거리를 두었다고 보았다. 염상섭은 제국주의로 말해지는 자본주의적 근대성, 사회주의적 근대성, 그리고 국민국가를 내재하고 있었던 민족주의적 근대성 등 여러 근대성의 양태들과 끊임없이 불화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즉 봉건적인 전근대적인 질서로부터 해방, 제국주의/자본주의 체제하의 근대적 질서로부터의 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해방’의 기획이었다.<sup>65)</sup>는 결론이다. 이러한 논지들은 염상섭 문학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었다. 어찌 이들 뿐이겠는가, 실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모아 다시금 양견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양견식은 이미 1910년대 1920년대 염상섭을 체현(體現), 1920년대 문학의 전사로서가 아니라 독자적 위치에서 근대소설의 정립을 선취했기 때문이다. 모두에서 밝혔듯이 이 논문은 사실과 추론이 섞여 있어 가설을 논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논문을 강행한 이유는 양견식의 텍스트에는 수많은 서양의 사상가·문학가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너무도 적다. 이 논문의 가설을 논증해 나가는 작업들은 계속 해나갈 생각이다.

64)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화사연구』 제52호,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3.

65) 이종호, 『염상섭 문학의 대안근대성 연구』, 성균관대학 박사학위 논문, 2017.



## ■ 참고문헌

### 1. 자료

『開闢』 제4호-8호, 1920.9-1921.2.

『青春』 제14호, 1918.6.

남윤수·박재연·김영복 편, 『양백화문집』 1·2·3, 강원대출판부, 1995.

한기형·이혜령 엮음, 『염상섭문장전집』 1, 소명출판, 2013.

### 2. 단행본

김복순 편저, 『슬픈 모순(외)』, 범우, 2004.

김영금, 『백화 양건식 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15쪽.

박종원·최탁호·류만, 『조선문학사』, 열사람, 1988, 121쪽.

박충록, 『한국민중문학사』, 열사람, 1988, 210쪽.

明治文化研究會編, 스에케 후미히코(末木文美士)의『明治思想家論：近代日本の思想・再考Ⅰ』, トラスビュ, 2004, 60~61쪽.

아오키 마사루(青木正兒), 『江南春』, 東京平凡社, 1972, 63쪽.

오스기 사카에(大杉栄), 『大杉榮全集』第1・4卷, 大杉榮全集刊行會, 1926.

이오우에 엔로(井上圓了), 『戰爭哲學一斑全』, 哲學書院, 1894, 8~11쪽.

키오자와 만시(清澤滿之), 『清澤滿之全集』第四卷, 岩波書店, 2003, 111~116쪽.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세 깃발 아래에서 - 아나키즘과 반식민주의적 상상력』, 길, 2009.

앙리 베르그손, 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42쪽.

### 3. 논문

고재석, 『1910년대의 불교근대화운동과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제1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7.

\_\_\_\_\_, 『백화 양건식 문학연구』, 『한국문학연구』 제1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889.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제52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91.

김제란, 『한중일 근대불교의 사회진화론에 대한 대응양식 비교 - 동아시아 불교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비판의 두 흐름』, 『시대와 철학』 제21집,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박진영, 『중국어 문학 번역의 분기와 이원화』, 『동방학지』 제166집, 2014.

\_\_\_\_\_, 『사랑의 각성』 교열본, 『민족문학사연구』 제58호, 민족문학사연구, 2015, 101~119쪽.

양문규, 『슬픈 모순과 비판적 사실주의 문제』, 『창작과비평』 제67호, 1990년 봄.

\_\_\_\_\_, 『1910년대 한국소설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91.

\_\_\_\_\_, 『1910년대 유학생 잡지와 한국근대소설의 형성 - 학자광의 담론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3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156쪽.

유봉희, 『1910년대 한국근대소설이 보여준 사회진화론과 근대극복의지의 한 양상, 양건식의 사상과 문학세계

(1) - 『西哲康德格致學說』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122~123쪽.

윤종갑·박정심, 『동아시아의 근대불교철학』, 『철학논총』 제75집 제1권, 새한철학회, 2014, 417쪽.

이시환, 『일제강점기 한국 작가들의 중국현대문학 바라보기와 수용양상 - 양건식·이동곡·양명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33집, 2009.

이종호, 『염상섭 문학의 대안근대성 연구』, 성균관대학 박사학위 논문, 2017.

카시와라 유선(柏原祐泉), 원영상·윤기엽·조승미 옮김, 『일본불교사근대』,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117쪽.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 - 잡지『삼광』에 실린 염상섭 자료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4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

한점돌, 『양백화 소설의 모순의 미학』, 『인문논총』 제9집, 1990.

\_\_\_\_\_, 『1910년대 한국소설의 정신사적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2.

# The Totality of Yang Geon-sik(梁建植) Thought and Literature1

– The outline of Yang Geon-sik’s thought trajectory  
in the light of characters –

Yu, Bong-He\*

Baekhwa(白華) Yang Geon-sik(梁建植, 1889~1944) was the back-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Why is Yang Geon-sik still not properly entering Korean modern literature?, Although he was a writer who had already published a remarkable short story in the 1910s, there is no full-length novel except translation, and the stereotype that has been recognized as a Chinese literary translator since the 1910s, not a full-fledged writer, is still strong., For a bigger reason,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results that I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Yang Geon-sik idea as a ‘methodological value’ that I tried to counter the ‘violent modernity’ thrown by the West., This study is planned to proceed with two major directions with the aim of restoring the overallity of Yang Geon-sik’s ideas and literature.,<sup>1</sup> I will reexamine his ideological value through the ideological trajectory of Yang Kun-sik, and I will pursue it by rediscovering Yang Kun-sik’s literature in the 1910s and dividing it into two progress items., It is already known that his writing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in various fields, but there has been no mention of his ideological power., The fact that there were few signs of mentioning Yang Geon-sik in the study of

---

\* Professor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t the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n discourse in the 1910s and 1930s disproves this.,He was more sensitive to the formation of modern discourse in East Asia and the transition of knowledge field ().,When you read his entire article, you can see that he has revealed his voice precisely in every phase of the times.,This thesis is the first attempt of the research direction, and aims to reevaluate his ideological value through the trajectory of Yang Geon-sik's thought and to reestablish the position of Yang Geon-sik in our modern literature history.,Since Yang Geon-sik was a back-to-back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he decided to choose a methodology to explore his ideological trajectory through major figures from Korea, China and Japan during the Yang Geon-sik era.

**Key words**: Yang Geon-sik, Yeom Sang-seop, Osgi Sakae, Henri Bergson, Crotokin, Kiyozawa Manshi, Inoue Enro, Evolutionary Theory, Lifeism, Anarchism, Socialism, Modern Buddhism